



KIA 타이거즈 국내 잔류군이 지난 21일부터 강진에서 첫 겨울훈련을 시작했다. 홍세완(왼쪽) 선수가 장성호 선수에게 배팅볼을 던져주고 있다. /강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진 야구열기 '후끈'

한기주·장성호 등 KIA 잔류군 29명 '몸만들기' 한창

남도 1번지 강진에 야구 열기가 뜨겁다. 광주·전남 지역 출신 야구인들이 강진 베이스볼 파크에 한자리에 모여 2010년의 희망을 밝히고 있다.

동성고 출신 최인수 감독이 이끈 청원고 전훈

'메이저리거' 화순고 신진호도 강도 높은 훈련

동성고 출신의 최인수 감독이 지난 15일부터 35명의 학생을 이끌고 강진에 내려와있다. 1998년까지 모교에서 사령탑을 맡았던 최인수 감독은 지난 2008년 청원고를 무등기 우승으로 이끈 명감독. 최인수 감독은 "고향을 찾아 연습을 하니 기분이 좋다. 이곳에 편의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훈련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며 "지난해 부상선수들이 속출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올 시즌 타선의 힘이 좋은 만큼 강진에서 시즌 준비를 잘해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밝혔다.

주말에는 동성중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아들 최재현 군도 강진을 찾아 운동을 할 예정이다. KIA 타이거즈 잔류군도 강진 캠프에 합류해 열기를 더하고 있다. 20일 강진에 캠프를 마련한 KIA 선수단은 21일 강진에서 첫 훈련을 시작했다. 재활군인 한기주·홍세완을 비롯해 잔류군에서 함께 몸을 만들고 있는 김종국·장성호까지 29명의 선수는 내달 10일 까지 강진에서 겨울바람을 가르게 된다. 빨간 유니폼의 호랑이 군단 사이에 파란 유니폼을 입은 선수도 눈에 띈다. 메이저리거의 꿈을 꾸고 있는 화순고

출신의 신진호(미국프로야구 캔자시티)도 강진에 집을 풀었다. 오는 2월 화순고 졸업 앞두고 있는 신진호는 이번 달 초부터 강진 베이스볼 파크에서 개인 훈련을 해왔다.

KIA 타이거즈 잔류군이 강진으로 내려오면서 신진호에게 든든한 훈련 파트너가 생겼다.

KIA 선수단과 웨이트 훈련 등을 하고 있는 신진호는 불펜 포수 역할을 자처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달리고 있다.

신진호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 미국에서 훈련할 때는 외롭기도 하고 힘든점이 많았는데 KIA 선수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큰 힘을 얻고 있다"면서 "몸 준비를 잘해서 프로 무대에서의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구인도 있다. 해태시절 투수를 거쳐 프런티어로 활동했던 문성목 씨가 강진 베이스볼파크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허정무호, 스페인과 붙는다

(세계 1위)

6월 3일 오스트리아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는 6월3일 세계랭킹 1위 스페인과 평가전을 치른다. 스페인축구협회 앙헬 마리아 비야르 회장은 6월 3일이 될 것이며 스페인이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열흘 정도나 뒤에 치르기 때문에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르크에서 친선 경기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야르 회장은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평가전을 제안했으며 성사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날짜는 6월 3일이 될 것이며 스페인이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열흘 정도나 뒤에 치르기 때문에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운재 "체력 안되면 태극마크 반납"

축구대표팀이 라트비아와 친선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훈련을 한 21일 밤(한국시간) 스페인 마르베야 MPFS 훈련구장.

전술훈련에 앞서 위문업을 겸한 체력 테스트가 진행됐다.

시작은 '공포의 백백이'로 불리는 20m 왕복 달리기(서틀런). 다음날이 라트비아와 경기라 약식으로 테스트가 이뤄졌지만, 대표팀 만형인 골키퍼 이운재(37·수원·시진)에게는 여전히 만만치 않아 보였다.

왕복달리기를 마치고 나서 "조금만 더했으면 토할 뻔 했다"고 농담을 던진 이운재는 "나한테는 달리기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이운재가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뽑히면 무려 네 번이나 월드컵에 참가하게 된다. 이운재는 1994



년 미국 대회를 통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첫선을 보였고, 2002년 한·일 대회와 2006년 독일 대회에서 대표팀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다.

그는 "1994년에는 너무 어려 월드컵을 잘 풀었다. 2002년은 선수 이운재가 한 단계도 약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2006년은 선임으로서 팀을 이끌면서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너무 아쉬움이 남았다"며 지난 세 차례 월드컵을 떠올렸다.

올해 서른일곱 살의 이운재는 "아직 내가 남아공에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어쩌면 이번 남아공 대회가 선수 생활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회가 오면 최대한 잘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이어 "체력 훈련은 계속하고 있다. 내가 부족한 것은 훈련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면 대표팀을 떠나겠다"며 정정당당히 후배들과 경쟁해 월드컵 무대를 밟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연합뉴스

광주상무프로축구단

유소년 클럽 회원

4개 반 120명 모집

광주상무프로축구단이 25일부터 유소년 클럽 4기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20명으로 유치부반(6세미만) U8(초등학교 1~2학년반), U10(3~4학년반), U12(5~6학년반) 등 4개 반 각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주말반(토요일 15:00~17:00, 일요일 14:00~16:00)만 운영되고 광덕중학교 운동장과 광주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훈련이 진행된다.

가입비는 14만원 월 회비는 5만원으로 유소년 클럽 회원들에게는 유니폼 2벌, 스타킹, 트레이닝복 등이 지급된다. 홈경기 에스코트, 축구캠프 지원, 상해보험가입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광주상무의 GSFC 유소년 클럽은 광주지역 유소년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로 4기째를 맞는다.

광주상무 신이섭 단장은 "더욱 많은 어린 꿈나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즐겁게 축구를 하면 좋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광주지역 축구 저변확대와 축구가 더욱 생활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소년클럽 가입에 대한 문의는 축구단 사무국(062-371-5225)으로 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측

▲이금연씨 차남 최희중군 천병권(호남대 교수)·김 영씨 장녀 민선양=23일(토) 낮 12시 조선컨벤션웨딩홀 1층(영빈관)

▲정재승·최영임씨 장남 정호근 윤중훈·김미란씨 장녀 혜진양=24일(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 6층(그레이크스)

부음

▲박형일씨 별세 임재관·재웅·영숙씨 모친상=발인 24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조준섭씨 별세 선용·선호·선일·선화·선미씨 부친상=발인 23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조묘남씨 별세 오민수(주)남부건설 전무이사)·우진·우중·경희씨 모친상=발인 23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송영열씨 별세 박영선·순기·영일·영식씨 모친상=발인 23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CBS

광주 CBS TV 청년

영·혼을 사로잡는 힘

이사회 회장

이사회 부회장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 이사

▶ **방송 시간** ▶ **개요** ▶ **TV 방송 시간** ▶ **4주 1회** ▶ **시상금 5000원** ▶ **발행 4번**

광주CBS가 영·혼을 사로잡는 힘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광주CBS청년회
광주 CBS TV 청년회 ☎ 376-8607